

“풀 시드권 보인다”

위성미·양희영 LPGA Q스쿨 최종 라운드 진출 PGA Q스쿨 양용은 4R 현재 15언더 공동 10위

위성미(19·미국명 미셀 위)와 양희영(19·삼성전자)이 LPGA 투어 캘리포니아스쿨 4라운드까지 나란히 2위와 3위에 올랐다. 위성미는 7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의 LPGA인터내셔널골프장 챔피언스코스(파72)에서 열린 4라운드에서 4언더와 68타를 쳐 14언더와 274타가 됐다. 1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에 한 타 뒤진 위성미는 상위 70명만 나가는 최종 라운드 진출권을 여유 있게 확보했다. 양희영 역시 5언더와 67타를 기록하며 13언더와 275타, 3위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다. 이번 캘리포니아스에서 2009시즌 전 경기 출전권을 얻기 위해서는 상위 20위 안에 들어야 하며 공동 20위가 나오면 플레이오프를 치러 1명에게만 풀 시드권을 준다. 양용은(36·테일러메이드)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캘리포니아스쿨 4라운드에서 공동 10위에 올랐다.

한편 양용은은 같은 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웨스트골프장 니클러스 토너먼트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4일째 경기에서 버디 6개를 잡고 보기는 2개로 막아 4타를 줄였다. 15언더와 273타가 된 양용은은 전날 공동 11위에서 순위를 한 계단 끌어올리며 6라운드까지 상위 25명에게 주어지는 2009시즌 전 경기 출전권 획득 가능성을 부풀렸다. 해리슨 프레이저(미국)는 이날만 13타를 줄이며 59타를 쳐 올 시즌 PGA 투어 라운드 최저타 기록을 세우며 단독 1위로 뛰어올랐다. 종전에는 마이크 위어(캐나다), 부 위클리(미국) 등 네 명이 올해 하루에 10언더 이하를 친 적이 있지만 13언더라는 프레이저가 처음이다. 오태근(32·이동수골프)은 3타를 줄여 7언더와 281타가 돼 공동 102위에서 공동 80위로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한국, 일본 꺾긴 했지만...

폭설로 공식 경기 인정 안돼 한일여자프로골프대회전

세계무대를 호령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가 폭설 탓에 공식경기로 열리지 못하고 '이벤트'로 치러진 링크스컵 한일여자프로골프대회장에서 일본을 압도했다. 한국은 7일 제주 링크스골프장에서 양명 12명씩 나서 9홀 싱글스트로크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열린 대회에서 7승1무4패로 승점 15점을 받아 9점에 그친 일본을 크게 앞섰다. 작년에 연장전 끝에 당한 패배를 설욕했지만 대회는 공식 경기로 인정받지 못해 한일전 역대 전적은 4승1무3패로 변하지 않았다.

한국은 막내 유소연(18·하이마트)이 2언더와 34타를 쳐 미스카 유코를 2타차로 이기며 기선을 제압했다. 최나연(21·SK텔레콤), 한희원(30·힐라코리아)이 내리 쪼들며 신선주(27·다이와), 서희경(22·하이트)이 우에하라 아이코, 후도 유리를 잇따라 이겨 만회했다. 지은희(21·힐라코리아)가 하라 에리나에게 겨 चु중했던 한국은 박인비(20·SK텔레콤), 이지희(29·진로)가 승전보를 전하고 이선화(22·CJ)가 후쿠시마 아키히코(일본)와 비겨 승점 1점을 보태 사실상 승리를 굳혔다. 한일전 역대 최대 승점을 자랑하는 장정(28·기업은행)은 와카비야시 마이코를 3타차로 눌러 해기를 박았고 마지막 주자로 나선 전미정(26·진로)도 1타차 승리를 거둬 대미를 장식했다. /연합뉴스

최경주 남아공 골프투어 5위

최경주(38·나카이골프)가 남아공골프투어 네드뱅크 켈링지 3라운드까지 공동 5위를 달렸다. 최경주는 7일(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시티의 케리 플레이어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버디 2개에 보기 3개를 기록하며 1타를 잃었다.

4언더와 212타가 된 최경주는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와 함께 공동 5위가 됐다. 1위 헨리 스텐슨에 무려 13타 뒤져 마지막 라운드에서 역전이 쉽지 않지만 2위 로베르트 카를손(이상 스웨덴)과는 5타 차이에 불과해 아직 순위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최경주는 전날 12번 홀까지만 치르고 약 천후로 경기가 중단돼 2라운드 잔여 6개 홀까지 하루에 24홀을 뚫었다. /연합뉴스



위성미가 7일(한국시간)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의 LPGA인터내셔널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캘리포니아스쿨 4라운드 13번 홀에서 어프로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석 2관왕 ‘씽씽’

쇼트트랙 1,000m·1,500m 금 한국 남녀 금메달 6개 획득 빙속에선 이규혁 1,000m 금

남녀쇼트트랙 대표팀이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4차 대회에서 금메달 6개를 합작했고, 이호석(경희대)은 2관왕에 올랐다. 이호석은 7일 일본 나가노에서 막을 내린 남자 1,500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2분14초 317로 결승선을 통과해 캐나다의 찰스 해럴린(2분14초524)을 0.207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이호석은 전날 1,000m 금메달과 더불어 2관왕의 영광을 차지했다. 여자 1,500m 2차 레이스 결승에 나선 신

재복(광문고)은 2분22초376으로 우수, 전날 1차 레이스 은메달의 아쉬움을 씻어냈다. 함께 출전한 김민정(전북도청)은 2분22초 580으로 동메달을 따내 전날 1차 레이스 금메달의 상층세를 이어갔고, 남자 대표팀 에이스 성시백(연세대)은 500m 결승에서 42초041로 1위를 기록했다. 한편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거리 전문 이상화(한국체대)가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 5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상화는 이날 중국 창춘에서 계속된 대회 여자부 500m 디비전A 2차 레이스에서 38초56의 기록으로 세계기록 보유자 예니 볼프(독일·37초98)와 안네트 게리트센(네덜란드·38초56)에 이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또 전날 남자 1,000m 디비전A 1차 레이스에서 시즌 첫 금메달을 차지했던 이규혁(서울시청)은 1분10초02의 기록으로 아쉽게 4위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선수 16명 인터넷 도박혐의 수사

프로야구 출신 방송인 강병규씨에 이어 현역 프로야구 선수 16명이 인터넷 도박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한 도박 혐의를 받는 선수들은 대부분 삼성 라이온즈 구단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프로야구 선수들이 인터넷을 통해 사후권, 후도 유리를 잇따라 이겨 만회했다. 대부분의 도박 액수는 수천만원 대이지만 3~4명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도박을 벌여 총 도박 액수는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프로야구 선수들은 모두 3개 구단 소속 16명으로 삼성 선수들이 13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화 이글스 선수 2명과 롯데 자이언츠 선수 1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는 삼성의 C씨 등 정상급 선수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도박 액수는 수천만원 대이지만 3~4명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까지 도박을 벌여 총 도박 액수는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 체급 올린 최민호 금

코리아오픈 국제유도 남66kg

최민호(28·한국마사회)가 2008 KRA컵 코리아오픈 국제유도대회 남자 66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최민호는 지난 6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66kg급 결승에서 토리 토무(일본)를 상대로 경기 종료 10초를 남기고 허벅다리루리기 유효를 따내 정상에 올랐다. 2008 베이징올림픽 60kg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뒤 약 4개월이 지나 한 체급을 올려 처음으로 공식 대회에 출전한 최민호는 66kg급에서도 정상급 기량을 선보이며 건재를 과시했다. 여자 78kg급에서는 베이징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정경미(23·하이원)가 역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최홍만 K-1 복귀전 판정패

'테크노 폴리앗' 최홍만(28)이 석 달여 만에 치른 종합격투기 K-1 대회에서 또 패배를 당했다. 최홍만은 지난 6일 오후 일본 요코하마 레나에서 열린 K-1 월드그랑프리 파이널(8강 토너먼트) 리저브매치에서 3라운드까지 어렵게 경기를 진행한 뒤 세포에게 심판 전 일일치(0-3)로 판정패했다. 이로써 최홍만은 지난 9월 27일 바다 하리(24·모로코)에게 기권패하고 나서 석 달여 만에 패배를 맛본 동시에 지난해 12월 표도르 에멜리아넨코(32·러시아)와 대결에서 TKO로 전 이 후 4연패에 빠졌다. K-1 8강 토너먼트에서는 '플라임 젠틀맨' 레이 분아스키(32·네덜란드)가 격투기계에서 약동으로 유명한 하리와 결승전에서 맞대결을 펼치다 논란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대표: 성봉규 (합동등록번호 18-07-29)
 전 조선대학교 행정대학원 인문대학 원장
 전 조선대학교 경영학과원장 제1차 총원무위원
 (여) 사단법인 한국여성개발원 이사장
 전 경실련 재정위원회
 전 서울여성발전센터 자문위원장

상주역 세븐일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상주역 세븐일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지역: 상주역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지역: 상주역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지역: 상주역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지역: 상주역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지역: 상주역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지역: 상주역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

금당부동산

(062)223-7400 / (016-632-5659)
 (충장로5가사거리 2층, 금남로 5가와 엔터시네마 중권)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

공시가: 감정가 70%이하
 ●공정 분양 원천인 단지 1472건 중 863건 감정가 70% 이하
 ●주택 2000평 공시 19억2천만 원에 대입했을 때 13억6천만 원의 이익
 ●주택 2000평 공시 19억2천만 원에 대입했을 때 13억6천만 원의 이익

●대출금 2000평 8000만 원에 대입했을 때 13억6천만 원의 이익
 ●주택 2000평 공시 19억2천만 원에 대입했을 때 13억6천만 원의 이익

●주택 2000평 공시 19억2천만 원에 대입했을 때 13억6천만 원의 이익
 ●주택 2000평 공시 19억2천만 원에 대입했을 때 13억6천만 원의 이익

호남방

호남방으로 생각을 이동하라

아파트·주택·전문중개업체
 ☎062-383-3007
 www.honambang.com
 (주소창에 호남방)

아파트
 파실 때나 사실 때에는
 즉시 전화하세요! 바로계약! 사랑방·버블시장 무료광고!!

광고비는 호남방이 부담합니다.
호남방공인중개사 (광주본점)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 ☎011-603-5221
 (구 상무대 정문)

▶빌딩
 ●보통급 37억/월세 3,200만원 / -대가 85억
 ●보통급 20억/월세 4,000만원 / -대가 65억
 ●보통급 30억/월세 2,000만원 / -대가 55억
 ●보통급 5억/월세 2,000만원 / -대가 34억

▶토지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2,800㎡(850평) 3.3㎡당 1,300만원 / 727㎡(220평) 3.3㎡당 1,200만원 / 450㎡(136평) 3.3㎡당 850만원 / 300㎡(90평) 265평 평당 1,500만원

▶기타용도
 ●(농장) 그린벨트/3,000㎡(2.2만평) 평당 9만원(농산물)
 ●(주유소부지) 상가용 430평 평당 220만원/주유소부지 4억
 ●(전원주택지) 희산 사생리 전원주택지 분양 평당 65만원(18세대 동종인 주택으로 적당)
 ●(독립주택) 대단위 아파트단지 510평 단독주택+적합도로로 지하 주차대실 1400㎡ / 매가 45억
 ●(학원, 장례식장) 희산사(대지) 400평 평당 250만원

▶기타투자
 ●현금45억 투자 호물 11억수익
 ●현금35억 투자 월 임대수익 6,000만원

★맞춤후론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편리하실 물건만 모아 드립니다. 아무 때나 전화 주십시오.

다우공인중개사

☎523-8114 / ☎011-603-1308
 (용봉지구 현대3차 사거리)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대360㎡/건841㎡(지상4층)/12m도로면 코너/용5억6천만원/보도역 3천 원 795만원/매가 12억7천만

▶용봉지구 상가건물(신축)
 ●대437㎡/건870㎡(지상4층)/15m도로면 코너/용6억2천만원/매가 13억5천만

▶최고급 무인텔(직영)
 ●대2,057㎡/건2,248㎡/객실28/용15억/매가 28억

▶태양광발전소 및 전원주택지
 ●임28,200㎡/1,000KW /현재 김나루 빌/매가 3억5천만

▶창고부지 및 전원주택지
 ●임14,109㎡(주거지역 8,870/그린벨트5,239) /현재 김나루 빌/매가 8억5천만

저희 사무소는 건축중개 의뢰한 물건만 취급합니다.

대인동삼일부동산

☎(F)223-1140, 5210 / ☎011-602-2532
 (용봉역 신촌빌딩, 대인동 소방서건대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유회사가 다룬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